

# 2017년 10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

일시 및 장소 : 2017.10.27(금) 12:00~13:30

## ■ 주요 회의 내용

### ▲ 보도의 심층성 제고 및 주의사항

- 정부에서 발표한 '신고리 5,6호기 공론화위원회'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5,6호기 건설 재개,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, 노후 원전 연장중지 등 원자력 단계적 감축방안을 발표하면서 월성1호기도 중단방침을 밝혔는데 이는 현재 소송중인 사안임을 감안할 때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할 사항임을 지적해 주었으면 더 바람직했을 것으로 사료됨(김상선 위원)
- 미국행 항공기 탑승시 보안 인터뷰와 검색 강화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단신성으로 짧게 보도되었는데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안강화 배경과 인터뷰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면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봄(박동민 위원)
-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'단군매치의 승자는?'에서 야구를 잘 모르는 시청자는 단군매치의 의미를 알기 어려우므로 부연 설명이 필요함(박동민 위원)
- 트럼프 미국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일부 도를 넘는 반미시위(예: Dotard, 양키고 홈 등 피켓 시위 등) 장면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전해질 경우 앞으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지적과 함께 방송 수위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(김상선 위원)
- 비즈니스 기사 가운데, 홍보성이 강한 느낌이 드는 사례가 있음. 이 달에는 고양시에 새로 문 연 이케아와 롯데아웃렛 리포트가 그런 느낌이 강했음. 기업중심 기사보다 시민 중심, 소비자 중심이면 더 좋을 듯 하며 특히 인터뷰를 선택할 때, 시민의 시각이 드러나게 하면 좋겠음(이재경 위원)

### ▲ 자막처리, 표현 등 주의

- 자막 내용만을 보고 시청자 입장에서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처리 필요. 10월 24일 스크롤 자막에 "대부분 국공립대병원 부족 의료인력 PA간호사로 대체"로 나왔으나 시청자 입장에서 PA간호사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임(신현택 부위원장)
- 10월 초 자막에서도 "김영록, 농림관련 뉴스"를 이름만 자막 처리하여 시청자 입장에서 김영록이 누군지 모르니 "김영록 농림장관"으로 자막 처리하면 좋을 것임(신현택 부위원장)
- 제목과 자막에 지나치게 많은 따옴표가 쓰이는데 핵심 멘트를 인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, 시선을 끌려거나, 강조를 위해 따옴표를 많이 쓰면, 기사와 보

도의 신뢰도를 잃을 수 있음(이재경 위원)

#### ▲ 앵커, 출연자 관련 의견

- 여전히 뉴스앵커들의 연령대가 평균적으로 상당히 어린 것으로 느껴짐. 젊은 뉴스라는 강점도 있지만 연륜이 있는 앵커들도 몇 명씩 들어가 주면 균형감이 더 맞춰질 것으로 생각됨(주철환 위원)
- 통상 정치인들이나 정치관련 패널들의 출연이 많은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출연을 더 해줬으면 좋겠음. 인터뷰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임(주철환 위원)
- 패널선정에 있어 참신하고 공정한 선정에 힘써서 프로그램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 바람(박정숙 위원)

#### ▲ 기타 및 긍정적 의견

- 요즘은 시청자들에게 관심이 많은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중이므로 스포츠 관련 내용을 좀 더 많이 다뤘으면 함(김용직 위원)
- 가을 단풍이 11월초까지 이어지므로 날씨예보에서 전국 유명산들의 단풍 절정 시기를 알려주면 시청자들의 여행정보에 도움이 될 것임(박동민 위원)
- 보도국을 배경으로 아나운서가 뉴스를 진행하는 코너가 신설됐던데, 생동감 있어 보이고 좋은 시도 같음.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서 시청자들에게 신선하고 젊은 느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여겨짐(주철환 위원)
- 기자들이 현장중계나 스탠드업을 많이 해서 뉴스의 현장감이 많이 느껴짐. 앞으로 현장감 느껴지는 생생한 뉴스를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음(주철환 위원)
- 기자들의 스탠드 업 활용이 이제 정상수준에 근접하는 느낌. 주요 뉴스경우 상당수 리포트에서 스탠드 업을 볼 수 있었음. 초기 오디오만 사용하던 사례들과 비교하면 괄목할 발전이며 리딩의 안정감도 좋아졌음(이재경 위원)
- 비즈톡톡 '새로운 놀이문화, 실내 스포츠'는 건전한 놀이문화를 확산시키고, 소비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 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었음(박동민 위원)
- 연합뉴스가 흰색으로 나타나면서도 명암이 있는 글자를 사용하여 다른 뉴스의 배경화면과 섞이지 않으면서도 명확하게 보임. 이런 부분은 다른 자막처리에도 적용이 되어 심플한 화면정돈 되어 가독율이 높아짐이 돋보임(박정숙 위원)
- 최근 낮 시간대에 뉴스일번지 이슈들에 대한 코멘테이터들이 등장하여 토론이 이어지는 부분은 뉴스를 다방면으로 볼 수 있어 효과적임(박정숙 위원)
- . (끝)